프로축구 개막 D-3 | 2 역대급 외국인선수들의 등장

'반갑다, 프로축구야!' 겨울잠에서 깨어난 K리그 개막이 임박했다. 살아 숨쉬는 초록 그라운드에서의 향연이 3월 1일 시작된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한 프리시즌을 보낸 각 구단들은 모든 출전 채비를 마치고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26일 진행될 'KEB하나은행 K리그1 2019' 미디어데이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새 시즌 K리그를 조망한다.

페시치·조던 머치…유럽 스페셜리스트 경연장

〈FC서울〉 〈경남FC〉

서울 페시치, 세르비아 득점왕 출신
리그앙·세리에A 경험…몸값 넘버원
경남 외인 조던 머치·카스타이노스
유럽 명문 리그서 잔뼈 굵은 전력들
수원 타가트·울산 불투이스도 실력파

새 시즌 K리그1은 역대급 외국인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FC서울 페시치(왼쪽)와 경남FC 조던 머치는 유럽 명문 클럽을 경험한 선수들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FC서울·경남FC

K리그1(1부리그)은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구단이 투자에 인색했다. 특히 선수영입에 있어서 움츠러들었다. 전북 현대만이 과감하게 선수 영입에 나서 스쿼드를 살찌웠다. 타 구단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외국인선수 영입을 위해 기꺼이 이적료를 들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전북은 절대강자로 군림했다. 전력 면에서 자웅을 겨룰만한 팀이 없었다.

그동안 '저비용'의 선수를 찾아 '고효율'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팀의 능력으로 인정받아 왔다. 올 시즌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유럽 빅리그 출신의 외국인선수들이 유입됐다. 경력 등 면면만 놓고 보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써도 손색이 없다.

새 얼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FC서울의 페시치(세르비아)다. 페시치는 세르비아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프랑스 리그1, 이탈리아 세리에A 등 유럽 명문리그를 경험한 선수다. 서울은 페시치 영입을 위해 200만 달러(약 2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1 12개 구단의 외국인선수 중 최고 몸값이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놓였던 서울에게 페시치 영입은 무너진 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특급 카드인 셈. 거액을 들여 영입한 선수인 만큼 기대도 높다. FC서울 최용수 감독은 팀의 레전드인 데얀을 떠올리며 "데얀의 느낌이 난다. 공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춘 선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의 행보도 돋보인다. 경남은 조던 머치(잉글랜드)와 룩 카스타이노스(네덜란드)를 영입해 공격진을 보강했다. 머치는 카디프시티, 크리스털팰리스 등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다. 이청용(크리스털팰리스), 윤석영(FC서울) 등과 한 팀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다.

카스타이노스는 인터밀란(이탈리아),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포르팅(포르투갈) 등에서 뛴 경험이 있는 골잡이다. 지난해 K리그1 승격 첫 시즌 2위에 오른 경남은 올 시즌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까지 병행한다. K리그1에서는 상위스플릿을 유지해 강팀의 이미지를 굳히고 ACL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 '도시민구단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각오다.

수원 삼성 공격수 아담 타가트(호주), 울산 현대 중앙수비수 불투이스(네덜란드)도 주목받고 있다. 호주리그 득점왕 출신의 타가트는 잉글랜드 풀럼에서 뛴 경험이 있으며 불투이스는 네덜란드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인정받은 선수다.

K리그1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존 외인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북은 아드리아노와 로페즈(이상 브라질)가 건재하다. 지난해 21골(로페즈13골·아드리아노8골)을 합작한 이들은 올 시즌 전북의 V7 도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구는 최고의 콤비 에드가와 세징야(이상 브라질)를 붙잡았다. 지난시즌 8골·1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의 중추역할을 해낸 세징야는 새 시즌에도 큰 활약이 예상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리그 흥행 과제 짊어진 최용수-이임생 '친구의 전쟁'

최현길의 스포츠 에세이

엘리트코스 밟은 한국축구 창·방패
라이벌 서울-수원 사령탑으로 만나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기 의기투합

서울 최용수 감독

수원 이임생 감독

FC서울 최용수 감독과 수원 삼성 이임생 감독은 친구다. 호적상으론 1973년생 최 감독이 2년 어리지만 실제론 90학번(1971년생) 동기다. 최 감독은 동래고-연세대, 이 감독은 부평고-고려대 출신으로, 대학 시절 정기전에서 뜨겁게 맞붙었다. 공격수인 최 감독의 창과 수비수인 이 감독의 방패는 언제나 불꽃을 튀겼다. 이 감독은 "최 감독은 성격이 남자답고, 스케일 큰 플레이를 했다"고 전했고, 최 감독은 "이 감독은 신중하면서 책임감이 강했다"고 소개했다.

둘은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국가대표팀은 이 감독이 1992년, 최 감독이 1995년에 데뷔했다. 둘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호흡을 맞췄다. 이 감독은 지금도 회자되는 '붕대 투혼'의 주인공이고, 최 감독은 최종예선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독수리'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 감독은 1994년 유공(현 제주)을 통해 프로에 데뷔해 2003년 부산에서 은퇴할 때까지 10시즌을 뛰며 229경기에 출장했다. 최 감독도 같은 해 안양LG(현 서울) 유니폼을 입었고, 2006년 은퇴할 때까지 148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최 감독은 일본 J리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전성기를 보냈다.

다시 라이벌이 된 건 코치생활을 하면서부터다. 이 감독은 2004년부터 수원에서, 최 감독은 2007년부터 서울에서 감독을 보좌했다. 당시 수원과 서울의 신경전은 한국 프로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둘은 "언제나 전쟁이었다"고 회상했다.

감독이 된 뒤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서울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승승장구하며 일찌감치 지도자로 두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 감독은 혈혈단신 싱가포르로 건너가 프로구단을 맡았다. 평소 꾸준히 영어공부를 한 덕분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었던 이 감독은 그곳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

잠깐 동안 중국 무대를 경험한 둘은 2019시즌 K리그에서 맞붙는다. 최 감독은 지난해 말 서울이 강등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복귀했다. 이 감독은 수원을 통해 처음으로 K리그 감독이 됐다. 책임감이 한층 커진 진짜 라이벌이 된 것이다. 이 감독은 "초보인 내가 많이 배워야할 입장"이라며 시즌을 기다렸고, 최 감독은 "서로 잘 해야 할 처지"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수원과 서울, 서울과 수원, 두 구단은 누가 뭐래도 K리그 전통의 명문이다. 하지만 현재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아니,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 요즘은 슈퍼매치가 열려도 유별난 게 없다.

수원은 지난 시즌 6위, 서울은 승강 PO를 통해 간신히 1부에 살아남은 11위의 초라한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나서지 못한 채 구경꾼 신세가 됐다. 두 구단이 동시에 출전권을 따진 못한 건 2012년 이후 7년만이다. 성적도, 인기도 추락하면서 K리그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K리그의 중심에는 전북 현대가 자리했다. 여기에 울산 현대가 추격하는 구도다. 경남이나 대구, 포항, 제주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수원과 서울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차례다. 구단 수뇌부의 의지가 약해졌고, 선수층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다. 팬들의 질타도 쏟아진다. 구단의 태도가 바뀌어야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부활의 날갯짓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감독의 어깨가 무겁다.

둘은 의기투합했다. "재미있는 경기를 하자"고 약속했다. 수준 높은 경기로 슈퍼매치의 명성을 되찾는 게 급선무다. 최대 시장을 형성하는 두 구단이 살아나야 K리그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슈퍼매치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한편으로 내년 ACL 출전권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할 시즌이다.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두 감독이 K리그 흥행을 위해 불쏘시개가 되어주길 바란다.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듯해 미안하지만 두 감독의 능력을 믿기에 하는 부탁이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한국, U-20 월드컵 죽음의 조 편성

포르투갈·아르헨·남아공 넘지 못할 산들은 아니다

정정용호 목표는 "어게인 1983"
아르헨 상대로 4승1무3패 앞서

정정용 감독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25일(한국시간) 폴란드 르디니아에서 진행한 2019 U-20 월드컵 조추첨 결과,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남아공과 조별리그 F조에 편성됐다.

이번 U-20 월드컵은 비엘스코비아와 비드고슈치, 그디니아, 우치, 루블린, 티히 등 폴란드 6개 도시에서 5월 개최된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폴란드 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강호들과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을 다투게 돼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포르투갈은 역대 대회에서 2회(1989, 1991) 정상을 밟았고, 아르헨티나는 통산 6차례(1979, 1995, 1997, 2001, 2005, 2007) 우승을 경험했다. 2009년 대회 16강이 역대 최고 성적인 남아공은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평가이지만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다.

한국은 1983년 멕시코대회 4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2년 전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16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정 감독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했다. 8강은 물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 번 흐름을 타면 폭풍질주가 가능한 연령대가 성인무대 진입을 목전에 둔 U-20 월드컵이다.

U-20 월드컵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4승1무3패로 앞선다. 2년 전 조별리그에서도 2-1 승리를 거뒀다. 포르투갈과는 3무5패로 절대 열세이고, 역시 국내대회 16강전에서 1-3으로 패했으나 남아공에는 1승1무로 앞선다.

올해 초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정 감독은 "지난해 AFC U-19 챔피언십은 6년 만에 우승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대단했다. 소기의 목적(본선진출)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4강을 향해 뛰자'고 해줬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큰 목표를 잡겠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